

“80세 생일 행복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음악 콘서트 등 참석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80세 생일인 16일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날 낮 교황청 내 서열 2위로 꼽히는 독일 태생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현재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밸터 카스퍼 주기경을 비롯한 12명의 주기경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또한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교황은 이날 저녁 자신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음악 콘서트에 참석했다.

교황청 네르비홀에서 열린 이날 축하 콘서트에서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안토닌 드보르자크가 작곡한 음악들을 연주했으며, 이탈리아 유명 여배우 소피아 로렌도 참석했다.

교황의 개인 비서인 게오르그 광스바인 신부는 바티칸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날 교황이 받은 생일 선물에는 음악 CD와 서적, 꽃, 커다란 테디 베어, 그리고 바이에른주의 특산 흑맥주 80병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

작년 연봉도 1달러

미국 애플사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52)가 지난 해에도 ‘연봉 1달러’를 고수했다.

애플사가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잡스는 지난 해 연봉을 1달러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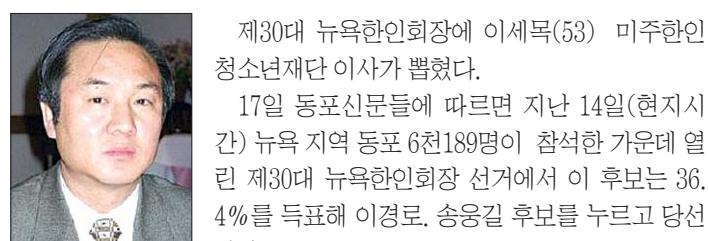
애플의 공동 창업주인 잡스는 지난 1997년 CEO로 복귀하면서 상징적으로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고 약속한 후 10년째 이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잡스는 애플이 앞서 지금한 제한부 주식 중 540여만 주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4억 9천만 달러(4천560억원)에 이른다.

잡스는 또 애플의 이사 자리으로 부여받은 스톡 옵션(주식매수 선택권) 12만 주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자신이 CEO를 역임한 애니메이션 영화사 ‘픽사(Pixar)’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지분도 50% 이상 소유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픽사를 인수한 월트 디즈니의 단일 최대 주주로 떠올랐다.

뉴욕한인회장에 이세목 청소년재단 이사



제30대 뉴욕한인회장에 이세목(53)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이사가 뽑혔다.

17일 동포신문들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 지역 동포 6천 1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이 후보는 36.4%를 득표해 이경로, 송웅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회장은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준 믿음이 저에게는 커다란 영광이지만 뉴욕 한인사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먼저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9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임운옥씨 차남 김윤식(대주간 설)(부인) 김혜중씨 장녀 서영양 =21일(토) 낮 12시50분 오후라하우스 1층 오피라트실.

▲양귀현(신한회계법인)씨 3남 정훈군 신영진씨 장녀 경희양=21일(토) 오후 1시 교보생명 빌딩 10층.

▲박영구(선진화국민회)의 광주지역 상임공동대표)씨 장남 성범군 임동주씨 장녀 인선양=21일(토) 오후 1시 광주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허계환(광양 중동중)씨 장남 창욱군 김고수(서문인쇄사)씨 막내 기회양=22일(일) 낮 12시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대연회장.

▲배인수(광주시 행정동우회 이사)씨 차남 상필(광주 북부소방서) 군 신복님씨 4녀 장영미(광주 북부소방서)=22일(일) 낮 12시50분

호성웨딩홀 2층 스위트홀.

▲고명근씨 차남 칭호군 안순관(전 전남도청 근무)씨 장녀 소영양=22일(일) 오후 1시1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오피라트실.

▲고 조홍석씨 장남 동식군 최윤범씨 장녀 정원양=22일(일) 오후 1시50분 상록예식장 장미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

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

“무농약 딸기가 당뇨신증 억제”

전남대 박수현 교수 의학적 효과 입증

전남대 수의대 박수현 교수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작물의 의학적 효과를 잇따라 입증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최근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의 매뉴얼대로 재배된 무농약 딸기와 관행재배 딸기를 대상으로 당뇨신증 억제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 무농약 재배된 딸기가 당뇨신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 당뇨신증은 신장의 사구체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의 30% 가량이 많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주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실험을 위해 신장을 캐출해 사구체 세포를 배양하고 당뇨병성 신증을 유도한 다음, 무농약 딸기와 관행재배 딸기에서 얻은 추출물을 처리해 당뇨병성 신증 유발물질인 아크(ERK), 정크(JNK), 액트(Akt) 등의 활성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무농약 딸기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관행재배 딸기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보다 JNK는 4.7배, ERK는 5.9배, Akt는 1.7배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병이 없는 정상 상태를 100%라 할 때, 혈당 증 상태에서 ERK는 1천 172%, JNK는 1천 392%, Akt는 249%까지 증가한 것으로 측정하고 관행재배 딸기를 처리한 후 ERK는 677%, JNK 952%, Akt 147%까지 억제되며 무농약 딸기를 처리한 후에는 ERK 114%, JNK는 205%, Akt는 88%까지 감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교수는 “무농약 토마토 등 다른 과일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유독 무농약 딸기에서 당뇨병성 신증 억제효과가 두드러졌다”며 “무농약 딸기의 어떤 성분이 어떤 기전에 의해 이 같은 효과를 내는지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달에도 키틴 분해 미생물 제제로 재배된 친환경 배가 일반 배에 비해 생체 에너지원인 ATP와 간세포 성장률을 2배가량 측정한다는 실험결과를 내놓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 미용고 학생들이 2007 전남기능경기대회 이·미용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스타일 빛는 마술사’ 전남 미용고

기술대회 미용 분야 금·은·동·우수상 훌쓸어

전남미용고(교장 신춘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한 2007 전남기능경기대회 이·미용분야에서 금, 은, 동상과 우수상을 수상해 가사 실업분야 특성화고교로 위상을 과시했다.

전남기능대회는 전남기능인의 제전으로 지난 11~14일까지 순천청암대학에서 41직종 454명이 참가한 가운데 30개 전문계고등학교가 참가, 일반인과 함께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변효인(3년·금상), 백미진(3년·은상), 범한솔(2년·동상), 박진희(3년·우수상) 등 미용고 수상자들은 일체

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오후 5시~8시) 교육만으로 이같은 성과를 거둬 교육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용고는 방과후 학교와 함께 일주일에 두시간씩 자신의 전공에 관계없이

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특기적성시간’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능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용고는 지난해에도 전남기능경기 대회에서 금, 은상을 수상했고, 2006년 한국미용페스티벌대회에서 금상, 은, 7개를 수상하는 등 전국에 이름을 높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 진보 석학들, 5월 광주 온다

전남대 5·18연구소 학술대회

‘5·18과 한반도 민주주의’ 토론



〈美 커밍스 교수〉 〈日 하루키 교수〉 〈최장집 교수〉 〈윤영관 교수〉

고 5·18과 광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학술대회에 국내·외 저명 석학들을 초빙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5·18과 한국 현대사’를, 와다 하루키 교수가 ‘동아시아와 남북 평화’를, 최장집 교수와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윤영관 교수가 ‘5·18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윤영관 교수가 ‘21세기 세계변화와 남북 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각각 기조

발표를 한다. 이들은 또 지역 학자 등 5명과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가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이자 북한 해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한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두 개의 주제를 설정해 대형 세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고려대 2기 교수의회 의장에 김민환 교수



김민환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가 16일 고려대 교수의회 2기 교수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이날 교수의원 36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의를 열고 김 교수를 의장으로, 의과대 김창덕 교수를 부의장으로 각각 뽑았다.

교수의회는 또 의장이 지명한 법과대 하태훈 교수를 총무로 임명했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올해 초 이필상 당시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진상 조사와 관련,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내용을 격은 바 있으며 이날 선출된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교수의회를 이끌게 된다.

‘광주 동구민상’에 박선흥 총장로축제 추진위원장 등 3명



〈박선흥씨〉

〈장원석씨〉

〈한종훈씨〉

가발았다.

‘제12회 동구민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용산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거행된다.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사

◆조선대

▲치과병원장 이상호

▲(사)광주여성의 전화 18기 상담 학교 침기자 모집=30일까지 접수. 지원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선착순 30명. 문의 363-0485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3

▲광주학교 한문교실 수강생 모집=기초~중급 과정. 월·주·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문의 672-7008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훈련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호 창업 IT